

경제 및 고용 동향

- ◆ 2010년 4월 생산·소비·투자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10년 4월 광공업 생산은 기타운송장비(선박, 담배 등은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9.9%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은 운수, 보건·사회복지, 부동산·임대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광공업 생산은 기계장비(49.3%), 자동차(39.0%), 반도체 및 부품(36.7%)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광업(-14.8%), 담배(-17.5%), 기타운송장비(-9.0%)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14.9%), 보건·사회복지(9.5%), 부동산·임대(7.8%),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6.3%) 등의 부문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며, 전문·과학·기술(-1.8%),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1.7%) 등을 중심으로 감소함.
  - 2010년 4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7.1%,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2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승용차, 컴퓨터·통신기기 등 내구재에서 전년동월대비 16.1%, 의복,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에서 전년동월대비 3.6%, 차량연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에서 전년동월대비 3.3% 증가함.
    - 설비투자는 반도체장비 등 기계류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25.7% 증가함.

-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토목공사가 부진하여 전년동월대비 5.4% 감소하였으며, 건설기성(경상)은 공종별로는 건축공사, 발주자별로는 민간부문이 부진하여 전년동월대비 1.1% 감소함. 건설수주(경상)는 건축공사는 증가하였으나 토목공사에서 지지효과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5%p 상승하여 2009년 3월 이후 14개월 동안 상승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전월대비 1.2%p 하락함.
- ◆ 2010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7% 상승(생활물가지수 3.0% 상승)
- 2010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5.7(2005=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2.7% 상승하여 2010년 2월 이후 4개월째 2%대 상승을 기록하였고, 5월 생활물가지수는 114.4로 나타나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동월대비 3.0% 상승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8					2009					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4월	1/4p	4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0.6	8.9	5.6	11.3	3.0	-15.7	-6.2	4.2	16.2	-0.8	-8.2	25.7	19.9( 0.2)
	제조업 생산	10.7	9.3	5.5	-12.1	3.0	-16.5	-6.7	4.4	16.8	-0.9	-8.8	26.8	20.5( 0.1)
	출하	8.9	6.6	5.3	-10.1	2.4	-14.9	-5.9	2.1	12.8	-1.7	-8.1	21.7	17.3( 1.1)
	내수	5.3	1.7	1.7	-11.0	-0.7	-15.7	-6.6	3.1	12.3	-1.8	-8.8	21.1	17.2(-1.2)
	수출	14.3	14.3	10.3	-8.8	7.1	-13.8	-4.7	0.8	13.3	-1.7	-7.1	22.5	17.8( 0.4)
	서비스업 생산	6.4	4.8	3.2	-0.4	3.4	-0.3	1.6	2.2	3.7	2.0	3.3	5.7	3.8( 0.2)
소비	소비재 판매	3.9	2.9	1.4	-4.2	1.0	-4.7	1.6	3.4	10.8	2.6	-4.2	9.9	7.1(-1.7)
투자	설비투자	-0.9	-2.7	5.3	-13.4	-4.3	-17.9	-13.4	-10.1	10.2	-8.0	-18.7	24.3	25.7(-5.9)
물가		3.8	4.8	5.5	4.5	4.7	3.9	2.8	2.0	2.4	2.8	3.6	2.7	2.7( 0.1)

주: p는 잠정치임. ( )안은 전기(월)비를 나타냄.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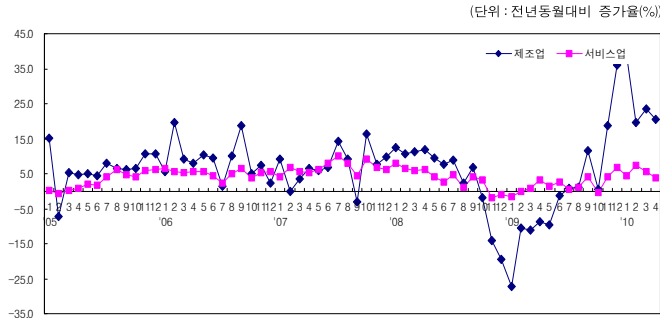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12.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는 5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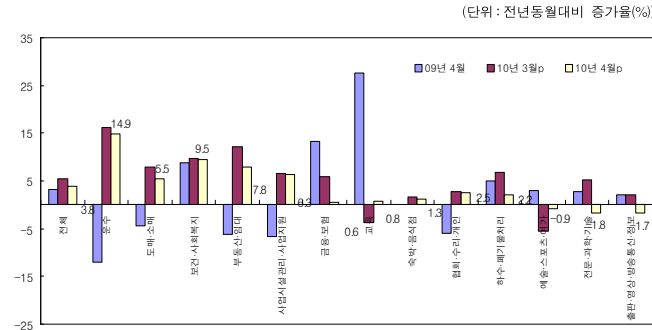
- 식료품·비주류음료(-1.0%) 부문만 제외하고 모든 부문에서 전월대비 상승함. 기타 잡비(1.3%), 가구집기·가사용품(0.4%), 외식·숙박, 의복·신발, 교통(0.3%), 교양·오락, 주거 및 수도·광열(0.2%) 등을 중심으로 상승함.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주: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통계청(2010), 『2010년 4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추이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김복순,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증가세 지속

- 2010년 4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4,85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2천 명(1.6%)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535천 명으로 186천 명(1.3%) 증가하였고, 여성은 10,323천 명으로 216천 명(2.1%) 증가함.
- 2010년 4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4%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성(73.4%)이 전년동월대비 동일하였고, 여성(49.9%)은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하였음(그림 3 참조).
- 2010년 4월 중 고용률은 59.1%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남성의 고용률은 70.3%로 전년동월과 동일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8.3%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하였음(그림 3 참조).
- 2010년 4월 중 취업자는 23,92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1천 명(1.7%)이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3,92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7천 명(1.4%)이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00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3천 명(2.2%)이 증가함(그림 4 참조).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8	2009				2010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경제활동인구	24,394 ( 0.3)	23,812 (-0.2)	24,680 ( 0.2)	24,456 (-0.2)	24,637 ( 0.5)	24,448 ( 0.2)	24,166 ( 1.5)	24,382 ( 1.3)	24,585 ( 1.6)
참가율	61.3	59.7	61.7	61.2	61.3	60.7	59.8	60.3	61.4
취업자	23,636 ( 0.3)	22,904 (-0.6)	23,737 (-0.6)	23,524 (-0.8)	23,751 ( 0.0)	23,631 ( 0.0)	23,037 ( 0.6)	23,377 ( 1.2)	23,924 ( 1.7)
고용률	59.4	57.4	59.3	5.8	59.1	58.7	57.0	57.8	59.1
실업자	757	908	943	933	886	817	1,130	1,005	934
실업률	3.1	3.8	3.8	3.8	3.6	3.3	4.7	4.1	3.8
비경제활동인구	15,373 ( 2.5)	16,088 (3.3)	15,347 ( 3.0)	15,521 (3.4)	15,528 ( 2.5)	15,829 ( 3.0)	16,254 ( 1.0)	16,073 ( 1.2)	15,632 (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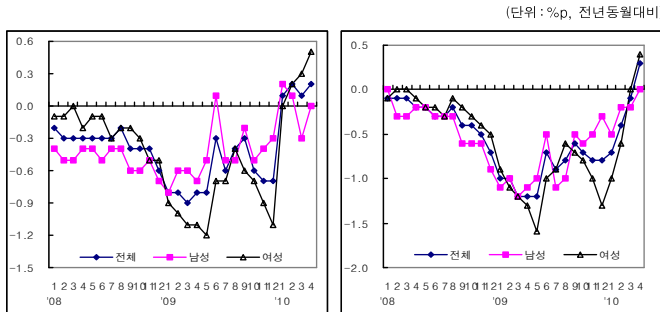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통계청(2010), 『2010년 4월 고용동향』.

- 2010년 4월 중 실업자는 93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 명(0.1%)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과 동일함.
  - 남성 실업자는 61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 명(-0.3%) 감소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3,23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 명(0.8%)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4.2%로 전년동월대비 0.1%p, 여성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음.
- 2010년 4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63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0천 명(0.7%) 증가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26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4천 명(1.4%)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37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천 명(0.4%)이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21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3천 명(51.3%) 증가하고,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수강 및 그 외 취업준비생인 '취업준비생' 66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천 명(11.8%) 증가한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26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2천 명(4.7%) 감소함.

◆ 제조업·건설업 취업자 증가, 내수산업 감소세 지속

- 2010년 4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67천 명, 4.7%), 제조업(154천 명, 3.8%), 전기·운수·통신·금융업(96천 명, 3.5%), 건설업(19천 명, 1.1%)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128천 명, -7.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97천 명, -1.7%)에서는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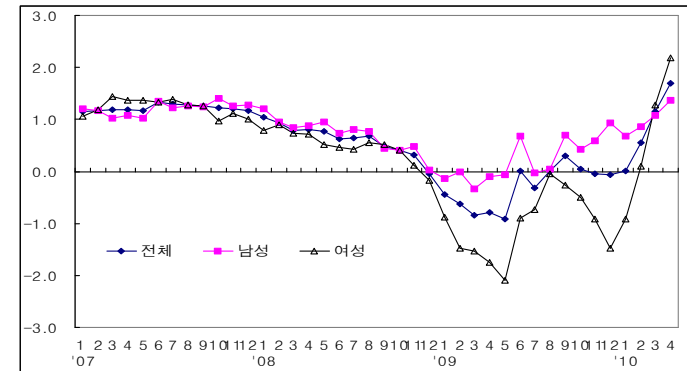
[그림 3] 성별 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가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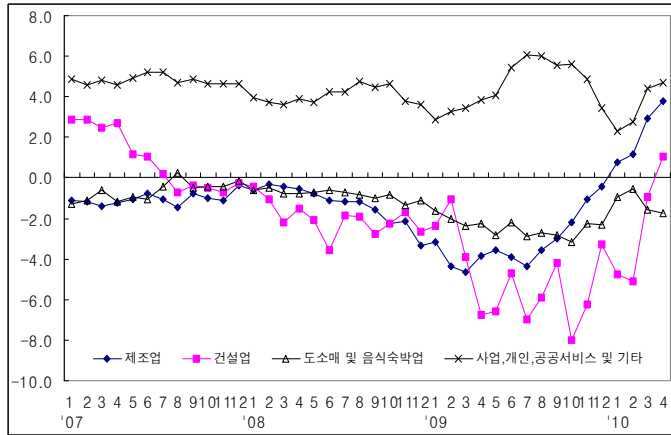
	2008	2009				2010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3월
전 산업	23,636 ( 0.3)	22,904 (-0.6)	23,737 (-0.6)	23,524 (-0.8)	23,751 ( 0.0)	23,631 ( 0.0)	23,037 ( 0.6)	23,377 ( 1.2)	23,924 ( 1.7)
농림어업	1,695 ( 0.5)	1,398 ( 1.0)	1,817 (-1.3)	1,757 ( 0.0)	1,799 (-1.4)	1,579 (-6.9)	1,235 (-11.7)	1,385 (-12.0)	1,630 (-7.3)
제조업	3,910 (-2.6)	3,850 (-4.1)	3,843 (-3.8)	3,846 (-3.9)	3,791 (-3.6)	3,862 (-1.2)	3,911 ( 1.6)	3,924 ( 2.9)	3,991 ( 3.8)
건설업	1,811 (-2.2)	1,705 (-2.5)	1,772 (-6.0)	1,773 (-6.7)	1,699 (-5.7)	1,704 (-5.9)	1,644 (-3.6)	1,720 (-0.9)	1,792 ( 1.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657 (-1.1)	5,589 (-2.0)	5,534 (-2.4)	5,531 (-2.2)	5,511 (-2.8)	5,511 (-2.6)	5,532 (-1.0)	5,455 (-1.6)	5,434 (-1.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7,787 ( 4.0)	7,618 ( 3.2)	7,984 ( 4.5)	7,852 ( 3.9)	8,175 ( 5.9)	8,149 ( 4.6)	7,859 ( 3.2)	8,043 ( 4.4)	8,220 ( 4.7)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754 (-1.9)	2,722 (-2.6)	2,765 (-1.8)	2,743 (-2.4)	2,753 (-0.9)	2,753 ( 1.8)	2,802 ( 4.1)	2,834 ( 4.2)	2,839 ( 3.5)

주 :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 통계청(2010), 「2010년 4월 고용동향」.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제조업 취업자 증가추세가 지속되며, 건설업 취업자가 반전하여 증가함(그림 5 참조).

◆ 비임금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취업자 감소추세 지속

- 2010년 4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6,93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0천 명(-3.3%)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6,99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41천 명(3.9%)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0,011천 명으로 784천 명(8.5%), 임시근로자는 5,147천 명으로 96천 명(1.9%)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1,836천 명으로 240천 명(-11.5%) 감소함.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용근로자의 감소세가 지속.
  - 2009년 이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의 감소를 중심으로 비임금근로자 감소추세가 지속되는 반면,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는 2009년 하반기 이후의 증가추세가 반전하여 감소함(그림 6 참조).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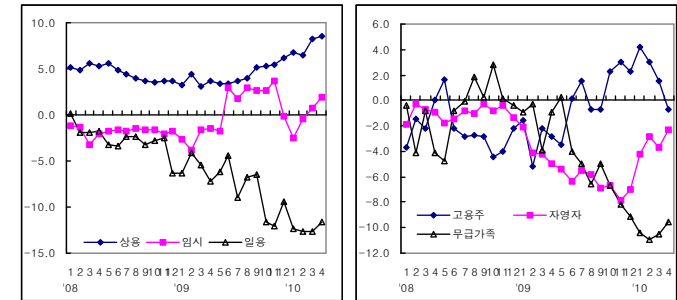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8	2009			2010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3월	4월
전체	23,636 ( 0.3)	22,904 (-0.6)	23,737 (-0.6)	23,524 (-0.8)	23,751 ( 0.0)	23,631 ( 0.0)	23,037 ( 0.6)	23,377 ( 1.2)	23,924 ( 1.7)
비임금근로자	7,343 (-1.1)	6,877 (-3.1)	7,212 (-4.1)	7,171 (-3.8)	7,166 (-4.7)	6,952 (-5.3)	6,638 (-3.5)	6,761 (-3.9)	6,930 (-3.3)
자영업주	5,939 (-1.6)	5,620 (-3.4)	5,787 (-4.7)	5,785 (-4.5)	5,776 (-4.6)	5,776 (-4.7)	5,514 (-1.9)	5,579 (+2.4)	5,659 (-1.8)
무급가족종사자	1,404 ( 0.9)	1,258 (-1.8)	1,425 ( 1.1)	1,406 ( 0.6)	1,390 ( 2.2)	1,292 ( 2.4)	1,124 ( 2.3)	1,182 ( 3.4)	1,272 ( 3.9)
임금근로자	16,294 ( 0.9)	16,027 ( 0.5)	16,525 ( 1.1)	16,353 ( 0.6)	16,585 ( 2.2)	16,678 ( 2.4)	16,398 ( 2.3)	16,617 ( 3.4)	16,994 ( 3.9)
상용근로자	9,106 ( 3.6)	9,157 ( 3.6)	9,294 ( 3.5)	9,227 ( 3.7)	9,487 ( 4.2)	9,621 ( 5.7)	9,808 ( 7.1)	9,926 ( 8.2)	10,011 ( 8.5)
임시근로자	5,062 (-1.8)	4,928 (-2.7)	5,136 (-0.1)	5,051 (-1.5)	5,174 ( 2.5)	5,167 ( 2.1)	4,892 ( 0.7)	4,976 ( 7.1)	5,147 ( 1.9)
일용근로자	2,126 (-3.8)	1,942 (-5.3)	2,094 (-6.0)	2,076 (-7.2)	1,924 (-7.5)	1,891 (-11.1)	1,699 (-12.5)	1,714 (-12.6)	1,836 (-11.5)
36시간 미만	2,833 (11.1)	3,092 (11.6)	2,997 (-1.9)	2,988 (19.3)	3,390 (-33.9)	2,961 ( 4.5)	4,851 (56.9)	3,297 (11.6)	3,295 (10.3)
36시간 이상	20,552 (-1.2)	19,351 (-2.7)	20,480 (-3.0)	20,300 (-3.2)	19,894 ( 9.7)	20,404 (-0.7)	17,671 (-8.7)	19,814 (-0.5)	20,379 ( 0.4)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2010), '2010년 4월 고용동향'.

(그림 6)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주: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통계청, KOSIS.

○ 2010년 4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29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7천 명(10.3%)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379천 명으로 79천 명(0.4%) 증가함.

◆ 30~50대 실업률 감소, 대졸 이상 실업률 증가

- 2010년 4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30~50대를 중심으로 감소하였고, 15~29세와 60세 이상 연령계층에서는 증가함.
  - 2010년 4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20대(8.6% 0.6%p)와 60세 이상(2.2% 0.7%p)에서 증가한 반면, 30대(3.8%, -0.3%p), 40대(2.4% -0.2%p), 50대(2.3%, -0.3%p)에서 감소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2.5%, 0.0%p)는 동일하고 고졸(4.1%, -0.4%)은 감소한 반면, 대졸 이상(4.1%, 0.2%p)은 상승하였음.
- 2010년 4월 중 전체 실업자 934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4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천 명 증가한 반면,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888천 명으로 12천 명 감소했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8		2009				2010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1/4분기		
								3월	4월	
전체	757(3.1)	908(3.8)	943(3.8)	933(3.8)	886(3.6)	817(3.3)	1,130(4.7)	1,005(4.1)	934(3.8)	
15~29세	300(7.0)	368(8.6)	351(8.0)	348(8.0)	350(8.1)	320(7.6)	408(9.5)	379(9.0)	366(8.6)	
30~39세	202(3.3)	227(3.7)	237(3.9)	249(4.1)	213(3.5)	202(3.3)	234(3.9)	229(3.8)	232(3.8)	
40~49세	134(2.0)	166(2.5)	176(2.6)	177(2.6)	160(2.4)	151(2.3)	192(2.9)	191(2.8)	160(2.4)	
50~59세	93(2.1)	108(2.4)	127(2.7)	118(2.6)	118(2.5)	104(2.2)	150(3.2)	126(2.6)	112(2.3)	
60세 이상	29(1.1)	39(1.6)	53(1.9)	41(1.5)	46(1.6)	41(1.5)	146(5.8)	80(3.0)	64(2.2)	
중졸 이하	111(2.1)	143(2.9)	141(2.6)	130(2.5)	116(2.2)	119(2.3)	241(5.1)	162(3.3)	130(2.5)	
고졸	383(3.8)	438(4.5)	459(4.6)	442(4.5)	460(4.6)	393(4.0)	493(5.0)	450(4.6)	408(4.1)	
대졸 이상	263(2.9)	327(3.6)	343(3.7)	361(3.9)	310(3.3)	306(3.2)	396(4.2)	393(4.1)	395(4.1)	
취업무경험실업자	37	47	38	33	37	36	57	43	46	
취업유경험실업자	721	861	905	900	849	781	1,072	962	888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 통계청(2010), 「2010년 4월 고용동향」.

(정성미,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임금동향

◆ 2010년 1/4분기 임금, 전년동기에 비해 높은 상승률 기록

- 2010년 1/4분기,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769천 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6.0% 상승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 증가율은 4.7%인 데 반하여 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의 증가율이 각각 22.3%, 7.7%를 기록하여 임금상승세를 주도
  - 비상용근로자는 전년동기대비 2.4% 상승한 849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
  - 경기회복으로 인해 임금상승률은 2009년 4/4분기 이후 회복국면으로 전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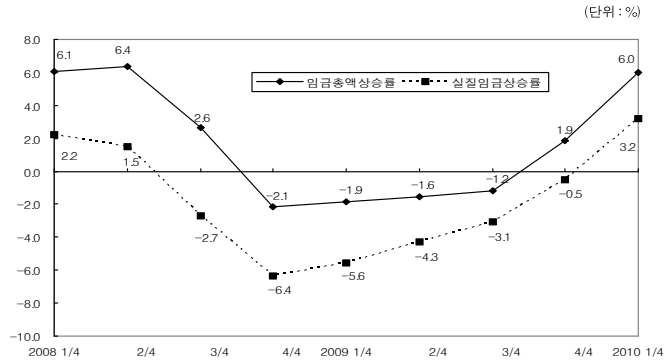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월, 2005=100.0, %)

	2007	2008	2009				2010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전체근로자 임금총액	2,561 (-)	2,640 (3.1)	2,622 (-0.7)	2,612 (-1.9)	2,524 (-1.6)	2,641 (-1.2)	2,711 (1.9)	2,769 (6.0)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2,716 (-)	2,810 (3.4)	2,795 (-0.5)	2,753 (-2.1)	2,684 (-2.3)	2,819 (-0.8)	2,915 (2.6)	2,922 (6.1)
	정액급여	2,026 (-)	2,154 (6.3)	2,166 (0.6)	2,142 (1.9)	2,156 (-0.7)	2,163 (0.7)	2,205 (0.5)	2,244 (4.7)
	초과급여	165 (-)	163 (-1.1)	156 (-4.1)	139 (-17.4)	151 (-10.9)	164 (4.0)	170 (9.2)	170 (22.3)
	특별급여	525 (-)	493 (-6.2)	472 (-4.2)	472 (-12.5)	386 (-5.0)	492 (-8.2)	539 (10.0)	508 (7.7)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	904 (-)	855 (-5.5)	830 (-2.9)	829 (-6.5)	806 (-1.3)	817 (-7.2)	867 (3.7)	849 (2.4)
실질임금 (전체 근로자)	2,443 (-)	2,406 (-1.5)	2,324 (-3.4)	2,341 (-5.6)	2,239 (-4.3)	2,331 (-3.1)	2,389 (-0.5)	2,416 (3.2)	
소비자물가지수	104.8 (-)	109.7 (4.7)	112.8 (2.8)	111.6 (3.9)	112.7 (2.8)	113.3 (2.0)	113.5 (2.4)	114.6 (2.7)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그림 7] 임금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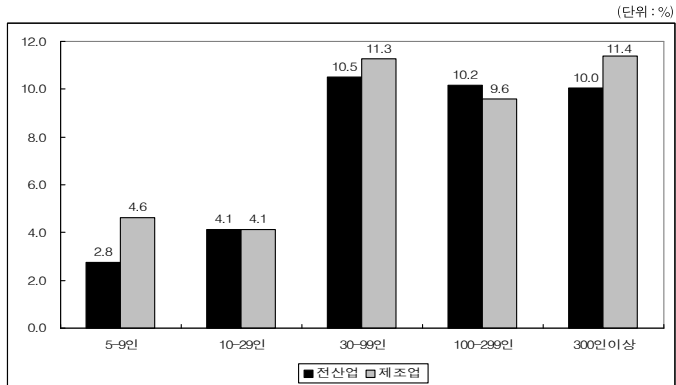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실질임금은 3.2% 상승

- 2010년 1/4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한 5인 이상 사업체의 실질임금은 3.2%의 상승률을 기록

[그림 8] 규모별 임금상승률(2010년 1/4분기)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대규모 사업체에서 높은 임금상승률 주도

- 2010년 1/4분기 전체 산업의 규모별 임금상승률은 5~9인 2.8%, 10~29인 4.1%, 30~99인 10.5%, 100~299인 10.2%, 300인 이상 10.0%를 기록하여 대체로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 제조업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확인되고 있는데, 5~9인 규모의 임금상승률은 4.6%인 데 반하여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11.4%로 나타나 규모간 임금상승폭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강승복,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동향

◆ 노사분규 발생 추이

- 2010년 1월 1일부터 6월 9일 현재까지 노사분규 누적 발생건수는 20건, 근로손실일수(2010년 6월 2일 기준)는 112,441일로 집계됨.

[표 7] 노사분규 발생 추이

	2010. 1. 1~2010. 6. 9	전년동기	증 감(%)
노사분규 발생건수	20	32	△37.5
총 결	16	20	-
진 행	4(3)	12(1)	-
근로손실일수	112,441	91,510	22.9

주: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근로손실일수는 6월 2일 기준임. 신규발생 1건은 금속노조 포함지부임.  
( )안은 전년도 이월.

자료: 노동부.

◆ 근면위, 근로시간면제한도 의결

- 4월 30일(금) 15:00~5월 1일(토) 03:00 근면위는 제16차 전체회의를 개최, 근로시간면제한도 의결

- 5월 1일 양 노총은 근면위의 표결처리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근면위 의결 취소(5.6 한국노총) 및 무효확인(5.10 민주노총) 소제기 등 반발
- 5월 6일 추미에 환노위위원장은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5월 1일 근면위 의결은 입법취지에 어긋남을 지적하면서 5월 1일 근면위 심의안을 기준으로 하되, 법에서 규정한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기준 한도의 1/3 범위 이내에서 추가 가능하도록 보완하여 5월 17일까지 환노위에 보고하도록 권고
- 5월 11일 근로시간제한도 시행 관련 노사정(한국노총, 경총 및 대한상의, 노동부) 합의 및 14일 노동부장관 고시(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
  - ※ 노사정 합의문 주요내용: ▲사업장 특성에 따른 가중치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근면위가 심의·의결한 대로 시행하되, 노동부장관이 면제한도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면제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근면위에 심의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상급단체에서 활동 중인 노조간부의 역할인정 등 문제는 근로시간 제한도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노사상생의 협력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에 협의체를 구성·운영

- 5월 12일(수) 추미에 국회 환노위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은 근로시간제한도 고시 전에 근면위 공익위원의 의결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한다』고 밝힘
  - 5월 6일 환노위 전체회의 지적대로 5월 1일 새벽 강행처리한 근면위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심의·의결 절차와 내용은 개정 노조법 입법취지에 어긋남. 즉 법에 규정한 대로 4월 30일이 지나면 근면위의 노동계 및 경영계 대표 위원들의 의결권은 정지되고,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한국노총, 정부의 공기업 임금체계 개편 시도에 반발

- 6월 9일(수) 한국노총은 『정부는 일방적인 공기업 임금체계 개편 시도를 중단하고 정년연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제하의 성명 발표
  - 정부가 성과연봉제와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연동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시행하려 한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공무원 수준으로 연장하라고 주장

◆ 민주노총, 최저임금 동결안 제시한 경총 규탄 집회

-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안 제시한 경총 규탄 집회(6.7~6.10 매일 16:00) 개최

- 6월 9일(수) 『노동악법 재개정, 민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 제하의 논평 발표
  - 최근 민주당이 노조법 재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파견근로 확대 금지·사내하도급 규제·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밝힘.
  - 민주당이 증추추진 법안이라고 언급한 『특수형태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한적 단체행동권 인정)』에 대해 단결권·교섭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제한 없는 단체행동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
- 6월 10일(목) 민주노총은 노총회의실에서 『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 비판 및 대응 방안 발표』 기자회견 예정
  - 노동부 매뉴얼의 근본적 문제점과 위법성을 발표하고, 부당한 매뉴얼에 맞선 민주노총의 구체적 대응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주장

◆ 금속노조

- 6월 9일(수) 노조의 파업 지침에 따라 전국 14개 지부 99개사 16,012명 파업(1.5시간~8시간)
  - ※ 파업 참여 사업장: 만도(2,420명), 한진중공업(900명), STX조선(750명), 타타대우상용차(694명), KEC(670명)
  - 이날 경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속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전임자 급여 지급 목적 등)이라며 정부의 엄정 대응 요청
- 그간, 노조는 5월 14일~5월 20일 14개 지역지부 중 8개 지부의 지부집단교섭 및 사업장보충교섭 조정신청 → 5월 25일 산별중앙교섭, 5개 지부(광주전남지부는 제외) 지부집단교섭 및 사업장보충교섭 조정신청 → 5월 28일 4개 기업지부 중 만도지부 조정신청
  - ※ 조정결과: ▲행정지도: 산별중앙교섭(6.4), 구미지부(6.4) ▲조정중지: 경주(5.24), 충남(5.27), 경기·대구·부산양산·서울·울산(5.28), 포항(5.31), 전북(6.4), 만도(6.7) 등 13개 지부
  - ※ 부분파업: 6월 4일 경기지부는 9개사 4시간(1,454명), 울산지부는 1개사 1시간(120명), 대구지부는 1개사 2시간(250명), 포항지부는 3개사 3~4시간(200여명) 각 파업
  - 6월 7일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5.18~5.28, 6.1~6.4) 83%(재적 조합원 기준 71.9%) 찬성 가결” 발표
  - 6월 8일 노사 8차 산별중앙교섭 개최, 사측이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안(월 978천

- 원 → 월 988천원) 제시 → 노조는 미흡하다는 입장 표명(6.15(화) 차기 교섭 예정)
- ※ 산별중앙교섭 관련 노조 요구안: 금속산업 최저임금 수준 제시(월 1,076,770원, 시급 5,152원), 사내하도급 제한, 현행 퇴직금 제도 유지 및 산별퇴직연금 도입 논의, 실노동시간 단축(연간 2,700시간), 전임자 수·처우 현행 유지
- ※ 사측 제시안: 월 988,000원 시급 4,250원, 직접생산 공정에 파견근로자 사용 원칙적 금지 현행유지, 협약 유효기간 2년 설정, 전임자관련 요구안 수용불가

◆ 발전노조

- 6월 9일(수) 노조는 전임자 10명이 노조사무실에 출근하는 방식으로 업무미복귀(5.24부터), 발전5개사 중 남부남동동서발전 대표자 주거지 앞 1인 시위 계속(6.1부터)
- 한편 노사교섭은 전임자 문제 등에 대한 입장차이로 5.27 이후 중단된 상태
  - ※ 노사 주요쟁점: 노조는 기존 전임자 전원 근태협조(유급처리) 및 인사·경영권 조항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교섭위원(5명)에 한해 근태협조 가능, 인사·경영권 침해 조항 개정 등 요구
- 그간, 노사는 2008년 7월 29일 임단협 교섭 상건례 이후 2008년 12월 16일 임금협약은 타결(3% 인상)하였으나, 단체협약은 2009년도에 재개기로 합의(09.2.4 단체교섭 재개)
  - 노조는 2009년 9월 6개 권역별 야간총회 개최,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52.2% 찬성), 10월 13일 임단협 조정신청(10.27 중노위, 조정중지)
  - 2009년 11월 2일~5일 노조간부 87명 파업, 11월 6일 조합원 986명 파업, 11월 18일~26일 지부장 해임으로 노사간 갈등을 겪고 있는 남동발전 소속 영흥화력지부 파업(11~39명)
  - 11월 4일 사측, 노조에 단협 해지 통고(10.5.5 해지 발효)
  - 2010년 5월 5일 단협 해지 이후 사측은 ▲5월 6일 전임자 전원(12명)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5.10자) ▲5월 25일부터 체크오프(조합원 임금에서 조합비 일괄공제하여 노조에 지급) 중단 ▲6월 3일부터 노조사무실에 제공하던 전화 및 팩스 사용 금지 조치
  - ※ 5월 17일 노조가 중노위에 사후조정 신청하였으나 5월 24일 사측은 불응입장 표명 → 5월 28일 노조는 사측을 비난하며 7~8월 전력사용 피크시기에 분명한 책임을 물겠다고 밝힘.

◆ 기아자동차

- 6월 9일(수) 노조가 요구한 임단협 6차 상건례, 사측이 노조의 전임자 관련 요구사항 철회를 주장하며 불참하여 무산, 사측은 노조가 전임자 관련 요구사항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
  - 이날 노조는 6월 11일(금) 임단협 7차 교섭(상건례)을 사측에 요구하는 한편, 6월 10일 확대간부회의 및 노조사수 결의대회(14:00) 예정
- 그간, 노조는 4월 19일~5월 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 금년도 임단협 요구안 등 확정
  - ※ 임단협 주요내용: 기본급 130,730원(8%) 인상, 국내외 공장 생산비율제 도입, 전임자 처우 현행 유지 등, 주간연속2교대제 및 임금저하 없는 월급제, 실질임금·생계비 부족분 기본급 대비 300%+α 정액 인상 등
  - 5월 17일~6월 9일 노사 6차례 임단협 상건례, 사측 불참으로 무산 → 사측은 노조 요구안 중 전임자 처우 현행 유지 등 수정·철회를 요구하며 불참
    - ※ 사측, 수정·삭제 요구 조항: ▲전임자 급여지급 현행 유지, 조합 채용 상근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요구 ▲인사·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노조 대표에 사외이사 후보추천권 보장, 노사 동수 징계위 구성, 국내공장 현재 생산 유지 등) ▲해고자 복직 요구 등
  - 6월 8일 사측은 전임자 관련 사항에 대해 교섭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지적하고,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사항은 별도 노사협의를 통해 시행기준을 마련하자고 주장

◆ GM대우자동차

- 6월 9일 노사는 임단협 5차교섭 개최
  - 노조가 임금(기본급 130,730원 인상) 및 단협 별도 요구안 등 설명 후 종료, 6월 10일 임단협 6차교섭 예정
- 그간, 노조는 3월 2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단협 요구안 확정
  - ※ 임단협 요구안 주요내용: 기본급 130,730원 인상 등, 외주 및 용역전환시 노조와의 협의, 15년 근속자 자동승진, 정년연장(만 60세 월말 → 연말) 등 34개항,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임금저하 없는 월급제, 실질임금·생계비 부족분 기본급 대비 300%+α 정액 인상 등



◆ 언론노조 KBS 본부

- 6월 7일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일정 공고(6.10~6.16): ▲6.10~6.11 부재자 투표 ▲6.14~6.16 본투표 예정
  - ※ 노사 주요쟁점: 노조는 전임자 24명,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임금 10% 인상 및 노사협의회 설치 등 요구, 사측은 전임자 기준 법령 준수, 공정방송위원회의 노조별 설치 불가 및 KBS노조와 합의하여 참여 가능, 10% 임금인상은 KBS노조 이상의 조건은 불가하다는 입장
- 그간, 2009년 12월 15일 KBS노조(‘08.8월 언론노조 탈퇴 후 기업별노조로 전환, 상급단체 미가입) 소속 조합원 605명은 김인규 사장 퇴진투쟁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부결(09.11.30~12.2)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책임을 지지 않자 노조탈퇴 → 언론노조 가입 추진
  - 12월 18일 언론노조, KBS지부(조합원 50명)로 승인했다가, 2010년 1월 13일 KBS 본부(조합원 703명)로 승격
  - 2010년 3월 10일 서울남부지법,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KBS본부) 인용결정 → 3월 23일 사측, 이의신청 → 4월 15일 법원, 기각 결정
  - 노조는 6차례 교섭(4.8~5.26)이 진전 없자, 5월 26일 교섭결렬 선언
  - 6월 1일 노조는 7차교섭 종료 후, 중노위에 조정신청(6.16 조정기간 만료 예정)
    - ※ 6.1 노조는 본사 로비에서 조합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쟁취 및 조직 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 MBC 노조

- 6월 8일 노조는 사측의 징계(6.4)에 반발, 본관 로비 및 사장실 앞에서 『부당징계 철회 촉구』 연좌 침묵농성 계속
- 그간, 노조는 사측의 황희만 이사 부사장 임명(4.2)에 반발, 4월 5일 파업 돌입, 5월 13일 파업중단 결정(조합원 찬반투표 가결), 5월 14일 업무복귀
  - 6.4 사측은 인사위원회를 개최, 불법파업(4.5~5.13) 관련 이근행 노조위원장 등 징계대상자 41명(노조 집행부 18명 포함) 징계 확정·발표
    - ※ 징계현황: ▲해고: 이근행 위원장, 오행운 PD ▲정직 1~3개월: 노조 교섭쟁의국장 등 11명 ▲감봉 1~3개월: 노조 대외협력국장 등 8명 ▲구두경고: 직능단체장 8명 등 20명

- 6월 7일 노조는 서울지부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 향후 투쟁방안 결정하고, 사측에 징계 재심 신청
  - ※ 투쟁방안 주요내용: ▲중징계를 받은 조합원들은 징계 무효화를 위한 법적 투쟁에 대비해 즉시 재심 신청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고자 2인은 본관 로비에서 출근·점심·퇴근시간 중심으로 농성하고, 조합 집행부는 사장실 앞에서 연좌농성 ▲전 조합원은 ‘부당징계 철회’ 서명 운동 전개 및 리본 패용 ▲부당징계에 따른 피해는 모든 조합원들이 동일하게 분담 ▲6월 11일 예정된 재심 결과에 따라 행동방안 재논의 **KLI**

(반정호,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